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규모 2010년에 17조억원대 근접 예상

연평균 23% 고도성장 궤도 안착

통신, 가전, 건설 등이 융합된 홈네트워크 산업이 고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SBS 비즈니스개발 리포트에 의하면 홈네트워크 산업은 가전·통신·건축·휴먼 인터페이스 등이 융합된 산업으로 최근 웰빙 트렌드의 확산과 더불어 급성장 추세에 있어 향후 침체된 내수 시장의 활력 증진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특히 통신 인프라가 밀집된 주거 형태를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홈네트워크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시장선점이 가능한 분야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SBS 비즈니스개발(이상화) 보고서의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홈 시장 규모는 무엇보다 주택 시장 규모와 연동한다. 주택 시장전체 규모는 2005년의 1580만 호에서 2010년까지 1900만 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홈네트워크가 적용되는 신축아파트 규모는 약 100만여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홈네트워크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서비스시장과 장비시장으로 구분해보면 2005년 매출이 1조892억 원으로 전년대비 5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장비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87%에 달한다.

서비스 시장은 설비운영위주의 인프라서비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 구축 및 솔루션 개발 서비스로 구분하며 향후 엔터테인먼트·건강·교육 등의 응용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에서 채택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60%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도 홈네트워크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홈네트워크를 U-IT 839 전략 추진 분야 중 8대 서비스와 9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또한, '디지털홈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해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위한 융자산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홈네트워크 포럼에 따르면 전 세계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올해 1026억달러, 2010년에는 1,620억달러로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크게 기기와 서비스, 솔루션, 인프라로 이루어지는데 분야별로는 기기 성장률의 강세 속에 서비스와 솔루션이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를 2005년 6조2천억원에서 2010년 16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23%의 급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홈네트워크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기 시장도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기는 홈플랫폼(홈서버, 홈게이트 등)과 홈네트워킹, 홈인라장비 등으로 나뉜다.

전 세계 홈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지난해 586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32.2%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657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홈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지난해 6983억원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조4080억원 규모에 다가설 추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홈플랫폼 장비는 홈네트워크 시장을 꾸준히 이끌 것"이라며 "지난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홈인프라 장비는 시장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산업맥박

분석했다. 이어 “국내 시장은 셋톱박스(STB)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홈서버, 홈게이트웨어 등은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들도 속속 홈네트워크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다. 홈네트워크는 주택(건물)내 공간과 디바이스의 제약 없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층 더 높게 만들어주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총 집합이다.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가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홈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기업 입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조기에 시장에 진출한다면 수익 창출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홈 혹은 홈네트워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삼성전자·LG전자·소니·파나소닉 등 글로벌 전자업체들과 마이크로소프트(MS)·인텔·HP 등 글로벌 IT업체 등 상당수의 IT·전자기업이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운영, 미래의 가정에 대해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홈네트워크 관련 회사들이 속속 시장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하고 있다. 다음은 각 기관들의 시장전망 발표치이다.

- 국회과학기술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이 정착되는 2012년에는 수출 90억달러, 부가가치 34조원 및 27만명의 고용효과가 나올 것으로 분석됐다.
-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 그룹은 세계 홈네트워크 시장이 지난해 894억 달러에서 2010년 1620억 달러로 연평균 16.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홈 서버 및 홈 게이트웨이 등이 속한 홈 플랫폼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홈 서버가 방송·통신 융합형 제품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한편 정부도 디지털홈의 서비스 시장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으로 지난 2003년 홈네트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ITT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홈네트워크 보유 가구는 2003년 369만 가구에서 2008년에는 1억 1,000만 가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은 2004년 6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부가적인 단말기기 및 서비스 수요가 시장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시장은 2004년 1,326억 원에서 2008년에는 3,799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는 국내 홈네트워크 장비시장은 201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조 40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기업들의 수익 창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3%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05년에 49.4%만이 수익을 창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24.9% 상승한 것이다.